



숫자로 보는 임금 동향

2013년도 임금결정 및 임금현황



2013년도 산업현장에서 임금결정 결과는?



고용노동부에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금결정 현황조사(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결과,

☀ 2013년 협약임금인상률*은 3.5%로 전년(4.7%)에 비해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 2.3%(전년 3.0%), 민간부문 3.5%(전년 4.7%)]

* '협약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인상하기로 사전 합의한 임금의 인상률임

※ 2013년도 임금결정진도율 80.6%로 전년(77.1%)에 비해 3.5%p 상승

< 2013년도 임금결정 현황 >

(단위: 개소, %)

구 분	사업장수(A)	임금결정사업장수(B)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결정진도율(B/A×100)
			임금총액	통상임금	
총 계	9,580 (8,835)	7,722 (6,814)	3.5 (4.7)	3.6 (4.9)	80.6 (77.1)
민간부문	9,228 (8,498)	7,516 (6,646)	3.5 (4.7)	3.7 (4.9)	81.4 (78.2)
공공부문	352 (337)	206 (168)	2.3 (3.0)	2.2 (3.2)	58.5 (49.9)

*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안은 전년 통계임

☞ [업종별] 협약임금 인상률이 평균(3.5%) 보다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3%)” 등 4개 업종이고, 낮은 업종은 “운수업(2.4%)” 등 12개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 [규모별] 3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은 3.1%인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인상률은 4.1%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인상률이 1.0%p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의 인상률이 4.5%로 가장 높았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이 2.7%로 가장 낮았습니다.



2013년도 임금수준 및 임금제도 현황은?

☀ '13.1~11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70천원으로 전년동기(2,951천원)에 비해 4.0% 상승했습니다.

☀ 소비자물가 상승분(1.3%)을 감안한 실질임금(2,852천원)도 2.7% 증가하였습니다.

☞ <규모별> '13.1~11월 누계 상용근로자 5~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2,734천원으로 전년동기(2,631천원)에 비해 3.9% 상승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4,360천원으로 전년동기(4,200천원)에 비해 3.8% 상승했습니다.

<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단위: 천원, %)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1~11월(누계)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2,569	2,636(2.6)	2,816(6.8)	2,844(1.0)	2,995(5.3)	3,070(4.0)
	상용근로자	2,802	2,863(2.2)	3,047(6.4)	3,019(-0.9)	3,178(5.3)	3,252(4.0)
	비상용근로자	1,052	1,073(1.9)	1,056(-1.6)	1,215(15.1)	1,293(6.4)	1,375(7.1)
실질임금		2,718	2,714(-0.1)	2,816(3.8)	2,734(-2.9)	2,818(3.1)	2,852(2.7)
소비자물가지수		94.523	97.129(2.8)	100.0(3.0)	104.0(4.0)	106.28(2.2)	107.64(1.3)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고용형태별> 기업 규모 및 근로자의 능력·근속기간·직종 등의 차이를 배제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8.4%(12년 기준)로 나타났습니다.

※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 '09년 15.7% → '10년 12.6% → '11년 9.1% → '12년 8.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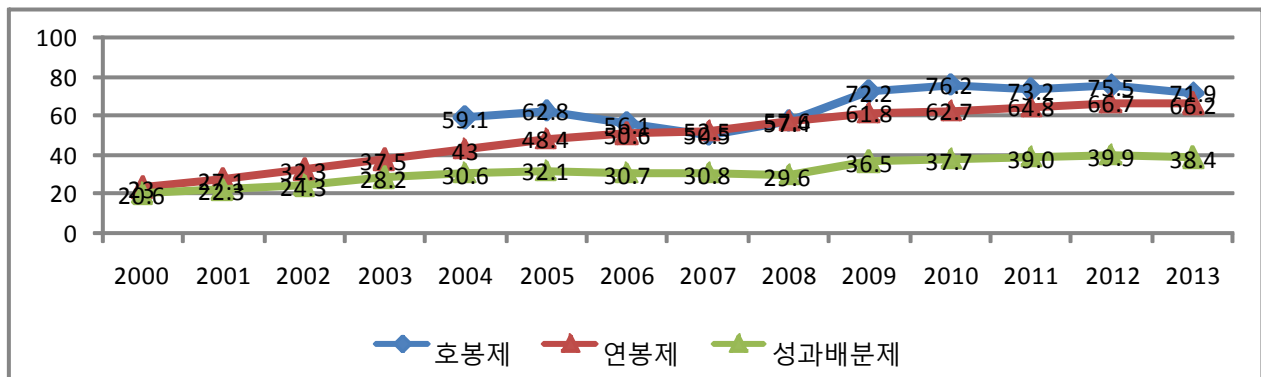
☀ '13년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제도는 여전히 호봉제 중심의 연공급이 지배적이며,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는 '13년 약간 감소하긴 하였으나 도입한 사업체가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입니다.

※ 호봉제 도입률: '09년 72.2%→'10년 76.2%→'11년 73.2%→'12년 75.5%→ '13년 71.9%

※ 연봉제 도입률: '09년 61.8%→'10년 62.7%→'11년 64.8%→'12년 66.7%→'13년 66.2%

※ 성과배분제 도입률: '09년 36.5%→'10년 37.7%→'11년 39.0%→'12년 39.9%→'13년 38.4%

< 임금제도 추이 >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08년까지「임금제도 실태조사」)



이 달의 임금이슈

2014년 노동시장 전망은?



경제성장은?

☀ '13.1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4년 경제전망」에 의하면 '14년 경제성장률을 '10년이후 4년만에 세계경제성장률(IMF 3.6%→3.7%로 '14.1.21. 변경)을 상회하는 **3.9%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세계경제/한국경제성장률(%): ('11) 3.9/3.7, ('12^p) 3.2/2.0, ('13^s) 2.9/2.8, ('14^s) 3.7/3.9
 ※ 14년 경제전망: 한국은행 3.8%, KDI 3.7%, IMF 3.7%, OECD 3.8%, LG경제연구원 3.7%

☞ 경제성장률이 '13년 4/4분기 중 3% 후반 수준에 도달한 이후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상반기는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한 경기보완, 하반기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부문 개선세 확대에 연중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전망은?

☀ '13.1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3년 소비자물가동향」에 의하면 '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3%**(소비자물가지수 107.67)를 기록하였고, '14년 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수요측 상승압력 및 기저효과 등으로 금년보다는 높은 **2.3%**로 전망하였습니다.

☞ '13년은 양호한 기상여건 및 국제 유가 안정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0.6%), 석유류(△3.3%) 가격하락**이 물가 안정세를 주도하였고, '14년은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 공급측 요인은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압력과 무상보육·급식에 따른 제도적 효과 소멸**, '13년 낮은 **농산물 가격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소비자물가상승률 '13.1월 1.6% → '13.3월 1.5% → '13.6월 1.2% → '13.9월 1.0% → '13.12월 1.1%
 ※ '14년 물가전망 한국은행 2.5%→2.3%<14.1.9. 변경>, KDI 2.0% IMF 2.6% OECD 2.1% LG경제연구원 2.1%



고용전망은?

☀ '13.1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4년 경제전망」에 의하면 '14년 취업자는 '13년(38만6천명)에 비해 확대된 **45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최근 고용 흐름,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45만명 수준 증가가 전망되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의 본격 추진**으로 추가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4년 **고용률(15~64세)은 65.2%**('13년 64.4%보다 0.8%p 상승)로 개선되고, '14년 **실업률은 3.0%**로 '13년(3.1%)보다 **0.1%p 하락**될 전망입니다.

※ 취업자증가 예상규모: 한국은행 38→43만명<14.1.9. 변경>, KDI 40만명, LG경제연구원 41만명

Q&A



우리나라 고령화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년 10.9%로 10년 전보다 3.9%p 증가하면서, 248개 시군구 중 67개 지역(27%)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3')
 -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00년 7.0% 수준에 머물렀으나 '05년에는 8.9% '10년에는 10.9%로 상승하였고, 향후 노인인구 구성비는 '20년 15.7% '40년 32.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 고령수준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13%이면 '고령화사회', 14~19%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
- ☀ 노인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90년 75.3%에서 '10년 30.8%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노인 1인가구는 '90년 10.6%에서 '10년 34.4%로 증가하였습니다.



좋은 일터

'공정한 평가보상제도' 도입으로 핵심인재 양성



S사는 '65년 설립된 근로자 387명의 전력용 콘덴서 제조업체로서 '10년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세계글로벌기업이 되겠다는 미션을 세우고 이를 위해 조직혁신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연간급여로 환산하고 연 700%의 성과급 중 일부를 차등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과장 이상만 적용하여 성과주의 인사 원칙이 전 사원에 확산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방식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과 개인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12년 기존 '연봉제'를 공정한 평가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S사는 11개로 구분됐던 직급을 5개로 단순화하고 직급별 성과보상을 명확히 하되 특히 대리직급 이상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승진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기술직군이나 영업·일반사무직군에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평가방식은 직군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성과평가(MBO)와 역량평가로 단순화해 실시하되 그 결과를 연봉인상·변동성과급·승진급 등에 반영하였고, 기존 연봉제 설계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현재의 기본급과 통상임금 성격의 수당, 상여금을 묶어 기준연봉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직책수당·변동수당·자격수당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준연봉은 기본급(90%)과 업적급(10%)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기본급은 개별 차등 없이 일률 방식으로 지급하되 업적급은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인상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종업계보다 초임은 높지만 승진에 따른 성과보상이 미흡해 핵심인재의 유출이 심했던 S사는 2011년 11.8%에 달했던 이직률이 2013년에는 5.43%로 절반 가까이 줄면서 조직의 안정감을 되찾았고 세계글로벌기업이 되겠다는 목표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